

四書의 經文 및 註文 해석에서 懸吐 논란 사례에 관한 고찰

신 상 후 *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註文 해석에서 논란의 사례 |
| II. 經文 해석에서 논란의 사례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懸吐는 입말과 글이 달랐던 환경에서 그 이질감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 先人들은 원문의 原型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어 사이에 우리 말 조사와 어미를 끼워 넣음으로써 원문의 문법구조와 의미를 드러냈다. 현토는 소재언어를 변형하지 않으면서 목표언어의 문장형태소를 사용해 목표언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토는 문장 해석의 기능을 갖는다. 반대로 말하면, 현토자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토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토를 살펴보면 그가 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토의 해석적 기능을 보이기 위하여, 四書의 經文과 註文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들 가운데 현토가 그 소재로 사용된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사례는 크게 경문의 해석과 주문의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경문 사례는 관본언해와 율곡언해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한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주문 사례는 朱子 『集註』의 내용을 토론하면서 현토를 소재로 한 사

* 성신여자대학교 고전연구소 연구원 / phil_33@hanmail.net

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현토와 문장 해석의 상관관계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토에 대한 논란이 문장을 정교하고 엄정하게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문 사례를 통해서도 특히 성리 담론에서 현토가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 토의 결정에 현토자의 철학적 견해가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懸吐, 四書諺解(官本諺解), 栗谷諺解, 四書集註, 理到說, 中庸之中

I. 머리말

한문은 본래 띄어쓰기 없이 글자를 연결하여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를 읽기 위해서 독자는 먼저 白文에 어떤 식의 가공을 하여야 한다. 가공의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句와 讀를 구분하여 떼는 것이다.¹⁾ 이보다 더 복잡한 가공법은 여러 가지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원문에 표점을 하는 일인데, 중국에서는 1951년에 표점부호사용법을 공포한 이후로 현재 16종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고적을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표점지침을 마련하여 우리의 한문 고전을 정리하고 있다.²⁾

표점을 하여 원문을 가공하는 일은 원문의 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이

1) 謙菴 柳雲龍(1539-1601)은 「分句讀法」에서 句와 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讀는 문장은 끊어진 듯하나 의미는 끊어지지 않아서 아래 문장에 연결하여 읽는 것으로, 문장이 끝난 것 같은 곳의 바로 가운데에 권점을 찍는 것이다. 句는 문장과 의미가 모두 끊어진 곳의 오른쪽에 권점을 비껴 찍는 것이다. [讀者, 文似斷而意未斷, 連讀下文者, 於文似斷處, 正當其中, 直點圓圈者是也. 句者, 於文義并絕斷處, 橫點圓圈於右邊者是也.]”(『謙菴集』 卷4, 「分句讀法」.)

2) 이상하, 「한문의 토와 표점의 상관관계」, 『고전번역연구』 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p. 192.

다. 이 작업은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번역의 일종이 될 수는 없는데, 孤立語로서 한문은 문장부호만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의미적 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³⁾ 그러나 표점이 번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번역이 소재언어(source language)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 바꾸는 작업이고 보면, 번역은 같은 목표언어 사용자들에게만 활용될 수 있다. 또 번역의 목표언어는 살아있는 현대어로서 잦은 변화를 겪는 것이기에 번역의 결과물은 목표언어의 변화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3, 40년 전에 번역된 글들은 재번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표점본은 번역본에 비해 시공간적 보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문의 문법과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상당한 시공간적 보편성을 갖는 원문 가공법이 또 하나 있다. 懸吐가 그것이다. 이는 원문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어 사이에 조사와 어미를 끼워 넣음으로써 원문의 문법구조와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때 끼워 넣는 조사와 어미, 즉 따는 우리말식 조사와 어미이다. 현토는 소재언어를 변형하지 않으면서 목표언어의 문장형태소를 사용함으로써 목표언어로 나아가게 하는, 일종의 반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토는 우리말식 토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보편성을 갖는다.⁴⁾ 4백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선조 때의 ‘校正廳諺解’(官本諺

3)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한문은 고립어에 속한다. 고립어는 조사가 없고 형용사나 동사의 활용이 전혀 없으며, 시제나 수에 따른 단어의 형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의미적 관계는 어순에 의해 파악될 뿐이다. 문장부호는 어순을 드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부호를 찍는 표점 작업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박종천, 『標點과 懸吐(口訣)의 비교 분석』, 『民族文化』 35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pp. 140-142. 참조.

4) 현토의 공간적 보편성은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입증된 적은 없기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현토의 공간적 보편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현토본을 외국에 유포하여 사용되도록 하는 시도가

解)와 ‘栗谷諺解’의 현토를 이용하여 경전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토가 한문의 문법에 밀착해 있는 것이고 한문은 변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현토는 한문의 문법과 文理를 따른다. 이는 한문을 국어의 틀에 맞추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한문의 구조 속에 들어가 그 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언어와 생각에 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글의 原義와 原型에 밀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현토는 이렇듯 한문의 문리에 밀착해 있는 것이기에 문장의 해석이라는 기능 이외에도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 토를 달아 읽으면 현토의 문리 체계를 익힐 수 있게 되는데, 이 체계는 한문의 문리에 닿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습득하면 한문의 문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선인들은 이 현토에 의지하여 한문 문리를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글을 지었기 때문에, 한국 한문의 문리를 터득하는 데에는 현토를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현토의 기능을 크게 해석과 교육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현토의 기준은 文法, 義理, 事證, 韻律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⁵⁾ 즉 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먼저 현토를 연구하여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문 고전에 현토를 하고서, 토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것을 첨부하여 현토본을 외국에 유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상하, 앞의 논문 참조. 이 논문에서 이상하 교수는 한문고전의 정리와 번역에서 표점을 사용해야 한다는 막연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주석을 달고서 토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표를 첨부하면 현토로 가공한 우리의 한문전적을 외국에 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5) 潛治 朴知誠(1573-1635)는 釋經의 법으로 文義·義理·事證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潛治集』 卷4, 「答權重之」.) 신영주 교수는 月汀 尹根壽(1537-1558)와 簡易 崔崱(1539-1612)이 현토에 대하여 토론한 책, 『韓文吐釋』을 분석하면서 이 세 가지에 ‘음절과 억양 등 음운적 요소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있는 語勢’를 추가하여 총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신영주, 『한문토석』에 나타난 윤근수와 최립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漢文學報』 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필자는 신영주 교수의 네 번째 기준을 수용하였고, 박지계의 세 가지

면 토를 달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이 네 가지가 그 준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문법을 통해 현토를 한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기 전에 문법 구조에 의거하여 토를 달 수 있다는 말이다. 소위 겉 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법에 해당할 것이다. 의리는 글이 담고 있는 의미 전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히 글이 담고 있는 깊은 뜻, 즉 사상이나 철학적 의미 등을 포함하는바, 소위 속 문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⁶⁾ 의리를 파악하는 것은 문법을 이해하는 것과는 또 다른 과정으로, 여기에는 독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적 견해가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그래서 겉 문리 토와는 다른 토가 달리기도 하며, 독자의 학문적 신념에 따라 토가 달라지기도 한다. 토에 대한 논란은 이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는 글자의 풀이나 문법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학파적 성향이나 철학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증은 역사나 사물에 대한 고증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없을 경우 잘못된 현토를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운율이란 독본의 제작이라는 현토의 목적과 연결되는 것으로, 문법이나 의미, 사증과는 관계없이 단지 읽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토를 달리 하는 것이다.

현토의 기준을 살펴보는 일은 현토의 문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

기준은 수용하되 조금 다르게 분류하였다. 박지계가 제시한 文義·文理·事證에서 事證은 그대로 수용하고, 文義는 文과 義를 나누어 文을 문법에, 義와 義理를 합쳐 義理에 해당시켰다. 박지계의 분류에서 義理는 철학적 의리만을 의미하지만, 필자의 분류에서 의리는 글의 전반적인 의미를 넓게 지칭하고 그 속에 철학적 의리도 포함한다.

- 6) 본고에서는, 위의 각주에서 밝혔듯이, 의리라는 말에 ‘글의 전반적 의미’와 ‘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의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러한 범주 설정이 지나치게 넓은 것일 수 있으나, 현토의 기준에 있어서 문법과 의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문법과 의미를 철저히 나누어 본 것이다. 즉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문법 구조만으로 어느 정도 현토를 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현토의 기준을 문법과 의리로 나누고 의리의 범주를 넓게 설정한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사례 중 경문 해석의 사례는 ‘글의 전반적 의미’가 반영된 것이고, 주문 해석의 사례는 ‘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다. 현토의 문리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현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현토의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이상하 교수⁷⁾와 신영주 교수⁸⁾의 연구가 있다. 전자의 연구는 문리라는 기준에 치중하였고 후자의 연구는 미학적 원리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의리, 즉 글의 의미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고 현토의 해석적 기능을 논할 것이다.

현토의 해석적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주석이나 현토 없이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先秦古文이다. 유가 경전의 경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유가 경전의 현토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 여러 석학들의 토론을 거쳐 완성되었으며,⁹⁾ 朱子の 주석에 철저히 의거하여 의리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할 수는 없기에 경전의 현토에 대한 이견이나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현토가 얼마나 엄정한 기준으로 행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II장에서는 경전의 경문을 해석하는 데에 현토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이기 위하여, 『論語』와 『孟子』의 경문에 대한 현토 중에 논란이 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현토는 그 문장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였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장 해석에 관한 논란에서 현토가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性理 담론은 문장 해석에 있어 자신의 학문적 견해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 담론에서도 현토가 소재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토에 있어 의리라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III장에서는 이를 위하여 『大學』과 『中庸』의 朱子

7) 이상하, 앞의 논문.

8) 신영주, 앞의 논문.

9) 1585년 왕명에 의해 校正廳이 설치되고 鄭述·崔永慶·韓百謙·鄭介清·鄭澈 등 당대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 이듬해에 『小學』과 四書의 언해가 완료되었는데, 이를 ‘校正廳諺解’라 하며, ‘官本諺解’라 하기도 한다. 이와는 별도로 李珣은 혼자서 사서를 언해하였는데, 이를 ‘栗谷諺解’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20집, 대동한문학회, 2004, pp. 225-232. 참조.

의 註文에 대한 현토를 둘러싸고 벌어진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經文 해석에서 논란의 사례

1. 『論語』 「學而」 8장¹⁰⁾의 “不重則不威”

『論語』 「學而」 8장의 官本諺解와 栗谷諺解의 현토는 다음과 같다.

【관본언해】 子 | 曰 君子 | 不重則不威니 學(하면)則不固 | 나라

【울곡언해】 子曰 君子 | 不重則不威오 學(도)則不固 | 나라

이 현토에서는 “不重則不威” 아래의 토가 다른 것만 확인되지만, 諺釋을 살펴보면 “學則不固”도 관본언해에는 “혹하면 고티 못흐느니라”라 하고, 울곡언해에는 “혹도 고티 못흐니라”라 하여, 學 아래의 토 역시 ‘하면’과 ‘도’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글자 아래에 토를 달면 호흡이 너무 짧아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句나 讀가 성립하더라도 토를 달지 않는 것이다.

먼저 “不重則不威”를 보자. 관본언해에서 ‘니’의 토를 단 것은 ‘부중즉불위’와 ‘학즉불고’가 두 가지 일이어서 그 사이에서 문맥이 바뀐다는 것으로, 이는 예컨대 ‘하여’ 토를 달면 ‘부중즉불위’와 ‘학즉불고’가 한 가지 일이 되는 것과 다르다.¹¹⁾ 즉 ‘부중즉불위’와 ‘학즉불고’가 연결되기는 하지만 긴밀한 인과적 연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울곡언해에서 “不重則不威오”로 현토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를 이해

10) 본고의 章과 節의 번호는 朱子의 『四書集註』를 따랐다.

11) 錦川 任圭直(1811-1853)의 『句讀解法』에 ‘하니’ 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일 및 다른 뜻으로 이어질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句讀解法』의 내용은 최석, 『漢文讀法の 韓國的 特殊性』, 『漢字漢文教育』 2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pp. 395-402.를 참조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朱子の 『集註』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문에 대한 『集註』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우는 것도 견고하지 못하다.

[不厚重, 則無威嚴, 而所學亦不堅固也.]

『집주』는 경문에 약간의 글자를 첨가하거나 바꾸는 방식으로 글을 해석한다. 여기에서도 약간의 변형이 확인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學’ 앞에 ‘而’를 첨가하고 ‘學則’을 ‘學亦’으로 바꾼 점이다. 율곡언해는 바로 이 ‘學亦’에 의거하여 “學則不固”를 “學도 不固”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壺山 朴文鎬(1846-1918)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則’자를 ‘亦’자로 바꾸었는데, 언해는 아직도 ‘則’자에 구애되어 이 ‘亦’자의 의미를 잃었다.¹²⁾

관본언해에서 “學則”을 “학하면”으로 해석한 것이 『집주』의 “學亦”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율곡언해는 이를 반영하여 “학도”라고 해석하였다. 결국 율곡언해에서 “不重則不威오”로 현토한 것은 아래에 “學도”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상하를 맞추어 토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不重則不威오”의 토는 “學도 不固”에 조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경문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관본언해의 “不重則不威니”의 토는 “부중즉불위”와 “학즉불고” 사이의 긴밀한 인과적 연결을 두지 않지만, 율곡언해의 “不重則不威오”의 토는 “不重”과 “學則不固”가 인과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율곡언해의 현토를 따르면 “不重”은 “不威”와 “學則不固” 두 결과의 원인이 되며, 이 경문의 강조점이 ‘不重’에 놓이게 된다.¹³⁾ 관본언해에서 “부중즉불위”와 “학즉불

12) 朴文鎬, 『論語集註詳說』 卷1 「學而」, “以亦字, 換則字, 諺釋猶泥則字, 而失此亦字義.”

고”를 두 가지 일로 나누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이를 박문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而’자를 더하여 ‘不固’를 끌어와서 ‘不重’에 이었다. ‘不威’의 諺讀(관본언해의 현토)은 이 ‘而’자의 의미를 잃은 듯하니, 독자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¹⁴⁾

박문호는 『집주』에서 “不重則不威”와 “學則不固” 사이에 ‘而’자를 놓은 것이 “不重則不威”의 ‘不重’과 “學則不固”의 ‘不固’를 긴밀히 연결시킨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말해 ‘후중하지 않음’의 원인이 ‘위엄이 없음’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문이 견고하지 않음’의 결과 역시 낳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不重則不威”의 토를 ‘하니’로 달아 두 句 사이의 인과성을 살리지 못한 관본언해의 토는 『집주』의 뜻을 살리지 못한 것이 된다. 관본언해와 율곡언해의 해석을 간단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본언해: 不重 → 不威 (사건1)
學 → 不固 (사건2)
율곡언해: 不重 ↗ 不威 (결과1)
↘ 學則不固 (결과2) ¹⁵⁾

결국 “不重則不威”와 “學則不固”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이 경문의 토를 결정하는 관건인데, 이에 대하여 ‘학문과 氣質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南溪 朴世采(1631-1695)가 權鑣의 질문에

-
- 13) 율곡언해를 지지한 박문호는 이 경문에 대하여, “이 節은 ‘重’ 한 글자에 중점이 있다.[此節 重在一重字]”라고 하였다.(朴文鎬 『論語集註詳說』 卷1, 「學而」.)
 - 14) 朴文鎬 『論語集註詳說』 卷1, 「學而」, “添而字, 以引不固, 並蒙於不重耳. 不威之諺讀, 恐失此而字義, 讀者察之.”
 - 15) 이러한 분석은 관본언해와 율곡언해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차이를 부각시킨 것이다. 관본언해 역시 ‘不威나’라고 하여 ‘不重則不威’와 ‘學則不固’ 사이의 연결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답한 내용을 보자.

문: 「學而」 20板的 “君子不重則不威니學則不固니라”를 諺解에 “君子 | 重티아니 ㅎ면 威티아니 ㅎ니 學 ㅎ면 固티못 ㅎ니니라”라고 하였는데, ‘學하면’의 토는 글 뜻으로 보았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諺釋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學則’의 ‘則’자는 ‘卽’자의 뜻으로 해석하고, ‘면’의 토는 ‘이’토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 威와 重은 기질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學은 학문의 道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만약 기질과 학문을 합하여 한 가지 일로 보면 구결은 ‘學이’라고 해야 하고, 나누어 두 가지 일로 보면 구결은 ‘學하면’이라고 해야 한다. 이 구분은 ‘則’과 ‘卽’의 訓에 달려 있지 않다.¹⁶⁾

“不重則不威”는 기질을, “學則不固”는 학문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기질과 학문의 긴밀한 연결을 인정하면 율곡언해와 같이 해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본언해와 같이 해석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관본언해의 해석과 율곡언해의 해석이 다른 것은 학문과 기질 사이의 연결을 이해함에 있어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지, 글자를 어떻게 訓했는가에 의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글자의 訓과 경문의 현토는 그 경문을 해석하는 사람의 견해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경문의 현토를 통해 현토한 사람의 학문적 신념과 철학적 견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2. 『孟子』 「公孫丑上」 1장의 “文王何可當也”

『孟子』 「公孫丑上」 1장 8절의 官本諺解와 栗谷諺解의 현토는 다음과

16) 朴世采, 『南溪集』 卷14, 「答權賓之(鑿)問(論語)」, “學而二十板, 君子不重則不威니學則不固니라, 諺解曰: 君子 | 重티아니 ㅎ면 威티아니 ㅎ니 學 ㅎ면 固티못 ㅎ니니라, 學 ㅎ면 之吐, 以文義觀之, 則似不合當, 未知諺釋之誤耶? 學則之則字, 釋以卽字之意, ㅎ면 之吐, 以이吐看得如何?” “威重指氣質而言, 學指學問之道而言. 若以氣質學問合爲一事, 則其口訣當曰學이, 分爲二事, 則口訣當曰 ㅎ면, 其下不在於則卽之訓矣.”

같다.

【관본언해】 文王은 何可當也 | 시리오

【울곡언해】 文王을 何可當也 | 리오

이 경문은 孟子가 제자 公孫丑에게 “齊나라를 가지고 왕 노릇 함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라고 하자, 공손추가 “文王의 德으로 백년 뒤에 崩하셨는데도 천하에 교화가 흠족하지 못하였는데, 武王과 周公이 계승한 뒤에야 크게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 노릇 하는 것을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文王은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니까?”¹⁷⁾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다. 孟子는 “文王何可當也”라고 답한 뒤에, 이어서 殷나라가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했던 역사를 거론하고, “古家の 남은 풍속과 流風, 善政이 아직도 남은 것이 있었으며, 또 微子·微仲·王子 比干·箕子·膠鬲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賢人이었다. 이들이 서로 紂王을 보좌하였으므로 오랜 뒤에야 나라를 잃은 것이니, 한 자 되는 땅도 그의 소유 아님이 없었으며, 한 사람의 백성도 그의 신하 아닌 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文王이 方百里를 가지고 일어나셨으니, 이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다.”¹⁸⁾라고 답한다.

“文王何可當也”의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文王이 어떻게 殷나라를 대적할 수 있으셨겠는가.’와 ‘文王을 後人들이 어떻게 대적하겠는가.’이다. 관본언해는 전자의 의미로, 울곡언해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였음을 그 현토를 통해 알 수 있다.

현토가 관본언해와 울곡언해에 다르게 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集註』의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趙岐의 古注에는 “문왕의 시대에는 功을 세우

17) 『孟子』, 「公孫丑上」, “以文王之德, 百年而後崩, 猶未洽於天下. 武王周公繼之然後大行. 今言王若易然, 則文王不足法與?”

18) 『孟子』, 「公孫丑上」, “其故家遺俗, 流風善政, 猶有存者. 又有微子·微仲·王子比干·箕子·膠鬲, 皆賢人也, 相與輔相之. 故久而後失之也. 尺地莫非其有也, 一民莫非其臣也. 然而文王猶方百里起, 是以難也.”

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어찌 당하실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¹⁹⁾ 라고 하여 관본언해의 해석과 같다. 退溪 李滉(1501-1570)도 “文王은 엇 데 可히 當히시리오”라고 현토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바, 관본언해는 이 說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맹자가 ‘殷나라 先王의 덕이 두터워 流風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문왕이 비록 聖德을 소유하셨으나 천하에 왕 노릇을 할 수 없었다’는 의미를 말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文王何可當’의 한 句를 먼저 말한 것이니, 바로 이른바 ‘倒句法’이라는 것이다.²⁰⁾

반면 沙溪 金長生(1548-1631)은 율곡언해를 따라 ‘문왕을 후인들이 당해낼 수 없다’의 의미로 보았고,²¹⁾ 茶山 丁若鏞(1762-1836) 역시 율곡언해와 같은 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趙岐 註의 說은 ‘文王이 殷나라의 德을 當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荀자의 說은 ‘後人이 文王을 當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니, 荀자의 說이 나은 듯하다. 文王이 殷나라를 當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可’字가 온당하지 않다.²²⁾

한편 尤庵 宋時烈(1607-1689)은 관본언해와 율곡언해의 해석을 모두 수용하였는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 『孟子注疏』 卷3上, 「公孫丑上」, “文王之時難爲功, 故言何可當也.”

20) 李滉, 『孟子釋義』, 「公孫丑上」, “蓋孟子將言商先王德厚流長, 文王雖以聖德, 不能王天下之意, 故先以文王何可當一句發之, 正所謂倒句法也.”

21) 金長生, 『沙溪全書』 卷12, 「經書辨疑·孟子」, “‘文王何可當’을 官本諺解에서는 退溪의 說을 따라 ‘文王이 殷나라를 對적하지 못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나는 ‘文王의 德을 後人들이 當해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되니, 이는 兪글에 ‘文王은 曷히 本받을 것이 못되는가?’라는 물음을 인하여 答하신 것이기 때문이다.[諺解從退溪說, 以文王不能當殷之意釋之. 愚意以爲文王之德, 後人不能當也, 蓋此因上文文王不足法之問而答之也.]”

22)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2集 卷5, 「孟子要義·公孫丑第二」, “註說謂: 文王不可當殷德也. 或說謂: 後人不可當文王也. 或說似長. 若云文王不當殷, 則可字未安.”

『集註』에서 이에 대해 해석하지 않았으니, 官本諺解와 沙溪의 『經書辨疑』 중에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然而’라는 글자를 가지고 보면 『경서변의』의 말이 마땅한 듯하고, ‘是以難也’를 가지고 보면 官本諺解의 말이 順한 듯하니, 우선 두 가지로 보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²³⁾

맹자가 ‘殷나라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에 “그런데도[然而] 문왕이 방백리를 가지고 일어났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주목하면 ‘문왕을 후인이 당할 수 없다’라고 한 『경서변의』, 즉 율곡언해의 해석을 따르게 된다. 반면에 “이 때문에 문왕이 왕 노릇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是以難也]”라고 한 것에 주목하면 ‘문왕이 은나라를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한 관본언해의 해석을 따르게 된다. 『맹자』의 경문에 두 가지 해석을 뒷받침할 근거가 모두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따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박문호는 ‘是以難也’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송시열의 說을 반박한다.

살펴보건대 沙溪의 說은 栗谷諺解와 부합하니, 마땅히 따라야 함은 의심할 것이 없다. ‘是以難也’ 한 句는 ‘그 어려움이 이와 같은데도 文王이 능히 하셨으니, 이것이 후인이 당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不足法’과 ‘何可當’은 위아래의 글이 서로 호응되어 굳이 해석하지 않고도 알 수 있으므로 『集註』에서 생략한 것이다.²⁴⁾

박문호는 ‘是以難也’의 의미를 ‘이 때문에 후인들이 문왕을 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로 해석한 것인데, 이와 같이 보면, ‘文王을 何可當也리오’

23) 宋時烈, 『宋子大全』 卷219, 「答三錫」, “本註於此不爲解釋, 未知諺解與辨疑孰爲得失也. 然以然而字見之, 則辨疑說似當, 以是以難也見之, 則諺解說似順, 姑爲兩下看, 恐無妨.”
 24) 朴文鎬, 『孟子集註詳說』 卷3, 「公孫丑上」, “按沙溪說與栗谷諺解合, 當從無疑. 是以難也一句, 其意蓋曰其難如此, 而文王能之, 此後人所以不可當也. 且不足法·何可當, 上下之文相爲呼應, 有不待解釋而可曉, 故註略之耳.”

의 현토와 ‘是以難也’의 의미가 순하게 연결된다. 그러나 율곡언해에는 ‘是以難也시니라’로 현토하였으니, 박문호의 해석과 다르게 ‘이 때문에 문왕이 왕 노릇하기가 어려우셨던 것이다’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경문에 대한 『집주』의 해석이 없는 것에 대하여 박문호는 ‘何可當’이 ‘不足法’과 그대로 호응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不足法’은 “文王은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는가?”라고 물은 공손추의 질문을 가리키는 바, 여기에 ‘何可當’이 호응된다는 것은 ‘文王’이 주격이 아닌 목적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문왕이 본받거나 문왕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왕을 본받고 문왕을 대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문의 현토는 경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는 현토가 글의 의미, 즉 의리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토를 반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토에 대한 논란을 살펴봄으로써 경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추적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우리 선현들의 경문 해석과 현토가 매우 엄격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완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Ⅲ. 註文 해석에서 논란의 사례

朱子가 자신의 철학을 경전의 주석을 통해 천명한 만큼, 성리학에서 주자의 경전 주석은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된다. 주자의 註文은 經文보다는 의미가 분명하지만, 그 역시도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러한 논란 중에 현토를 소재로 논의가 전개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大學章句』 經1장의 “物理之極處 無不到也”

『대학』 經1장의 “物格而后 知至”에 대한 주자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物格이란 物理의 極處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知至란 내 마음의 아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物格者, 物理之極處, 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 無不盡也.]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物理之極處 無不到也”의 해석인데, 그 논란은 현토로부터 촉발되었다. “物理之極處”에 ‘이’토를 달 것이냐,²⁵⁾ ‘에’토를 달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황이 성균관에 유학할 적에 平窩 尹倬(1472-1534)은 성균관 대사성이었는데, 이때 이황이 ‘物理之極處’의 吐에 대하여 묻자 윤탁은 ‘이’토를 단다고 답하였다. 이에 이황이 “理의 極處가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윤탁은 아니라고만 답하고 그 까닭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이황은 이에 대한 의문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²⁶⁾

‘物理之極處가 無不到也라’라고 현토하면 이 문장은 ‘물리의 극치가 내 마음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마음 밖의 理가 없고 마음 밖의 物이 없다.”²⁷⁾고 하는 陽明學적 견해와 가깝다. 윤탁이 이황의 물음에 대하여 아니라고 답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을 것이다. 이황도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병 [牽拽向裏之病]’이 있다고 평하였는데,²⁸⁾ 이 말은 羅欽順이 양명학파들의 격물설을 비판하면서 “物字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나 끝내 끌고 들어오지 못하니,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²⁹⁾라고 한 것을 인

25) ‘이’토는 주격을 만드는 토로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물리지극처”의 뒤에는 ‘가’토가 붙겠지만, 옛 토에는 ‘가’토가 없으므로 ‘이’라고 하는 것이다.

26) 李滉, 『退溪全書』 卷26, 「格物物格俗說辯疑 答鄭子中」, “滉少時入成均, 時尹先生倬爲大司成. 嘗問物格註極處吐. 尹公曰: 當云是. 問: 是謂理之極處 是自到吾心否? 公但曰: 非也. 不言其所以非之故, 每以不能審問爲恨.”

27) 王守仁, 『傳習錄上』, “所以某說無心外之理, 無心外之物.”

28) 李滉, 『退溪全書』 卷26, 「格物物格俗說辯疑 答鄭子中」.

29) 羅欽順, 『困知記』 續錄 卷上, “要將物字牽拽向裏來, 然而畢竟牽拽不得, 分定

용한 것이다.³⁰⁾

결국 이황은 “物理之極處에”라고 현토하고, 이 註文을 “물리의 극처에 내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駱峯 申光漢(1484-1555)의 설명을 받아들여 “物理之極處가”로 현토하는 것도 통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가 책을 다 읽었더라도 ‘책이 끝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의 궁구함이 극처에 이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근거한 것이다.

이황의 위와 같은 해석은 이이, 김장생, 송시열, 藥泉 南九萬(1629-1711), 遂菴 權尙夏(1641-1721) 등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朱子が 말하기를, “物格이란 物理의 極處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句는 아래 句와 對를 맞추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文勢가 이와 같은 것이니, 그 뜻은 ‘물리가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³¹⁾

아래 句와 對를 맞추었다는 것은, ‘物理之極處 無不到也’가 ‘吾心之所知 無不盡也’에 對를 맞추어 쓴 것이라는 말이다. 대를 맞추어 써서 문

故也.”

30) 성리학에서도 물론 모든 理가 心 안에 구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격물설에서 窮格의 대상이 되는 理는 心 밖에 존재하는 대상사물의 理이다. 사물의 理를 窮格하여 物格이 되었을 때, 사물의 理가 내 마음에 이르러 온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 없이 마음 안의 理만을 탐구하면 된다고 여길 수 있다. 이것이 주자학에서 양명학과 불교를 비판하는 지점인데, 바로 내 마음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天理를 모른다는 것이다. 주자학에서는 天理가 곧 人性이고, 天地生物之心이 곧 人物之心이라 하여 주관과 객관의 일치를 논하기도 하지만, 기질 등의 장치를 통해 주관의 한계를 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천리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인간 사이의 구분을 견지하기도 하니, 이 두 관점 사이를 오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자학의 주장이다. 양명학과 불교는 두 관점의 균형을 갖지 못한다고 주자학자들은 비판한다.

31) 李珣, 『栗谷全書』 卷19, 「聖學輯要一·統說第一」, “朱子曰: 物格者, 物理之極處無不到也. 此句與下句對說, 故文勢如此, 其意則物理無不到極處云爾.”

세가 순하지 않으나, 그 뜻은 物理가 極處에 이르렀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외부 사물의 理가 처음에는 극진하지 않다가 나의 격물 공부로 통해서 비로소 극진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物理는 본래 극진하나 이를 앎에 있어서는 명암의 정도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나의 궁구함이 극진해졌다는 의미인데, 물리를 위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물리가 지극해진다’라고 한 것이다.³²⁾ 이는 이황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런데 이황은 高峯 奇大升(1527-1572)과의 토론을 거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다. 이 내용이 『퇴계전서』 권18, 「答奇明彦」에 자세한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物理가 스스로 지극한 곳에 이른다는 설에 대하여, 理에 情意·計度·造作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했었는데, 高峯이 제시한 몇 가지 인용을 살펴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理가 스스로 이룸[理自到]’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보았다. 朱子가 “理에는 반드시 用이 있는데 어찌하여 굳이 또 心의 用을 말할 것이 있겠는가.[理必有用, 何必又說心之用乎?]”라고 한 것을 보면, 用은 비록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지만, 그 用하게 하는 妙는 ‘理의 발현이 사람의 마음이 가는 데를 따라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物格을 말함에 ‘물리의 극치가 내가 궁구한 바를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情意도 없고 造作도 없는 것은 理의 본연의 體이고, 머무는 곳을 따라 발현하여 어디에나 이르는 것은 理의 至神의 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理의 妙用을 알지 못하면 理를 死物로 여기는 것과 같으니,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³³⁾

이를 이황의 理到說이라고 하는데, 이는 栗谷學派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要는 理가 마치 스스로 운동하는 것처럼 논한다는 것으로,

32) 이를 이이는 어두운 방안에 있는 책, 옷, 상자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金長生, 『沙溪全書』 卷11, 「經書辨疑·大學經一章」. 참조.

33) 이는 李滉, 『退溪全書』 卷18의 16번째 편지 「答奇明彦」의 별지 내용을 필자가 요약한 것이다.

四端七情 논쟁에서 사용된 비판의 근거와 같은 맥락이다. 송시열은 이렇게 평가하였다.

退溪가 일찍이 ‘物格이란 사람이 窮格하여 그 극에 이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말년에 그것이 잘못인 줄을 크게 깨닫고 ‘물격이란 사물의 이치가 극처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본문의 뜻을 바르게 안 것이다. 그런데 ‘理는 죽은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또 본래의 뜻과는 차이가 큰 것이다. 이른바 털끝만큼의 차이로부터 千里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리란 책과 같고 사람이 窮理함은 사람이 책을 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 이 책을 보기 시작하여 끝에 이르면, 이는 비록 사람이 다 본 것이지만 그 책으로 말하면 책이 다 되었다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어찌 ‘이 책은 살아있는 물건이므로 처음부터 걸어서 끝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하겠는가.³⁴⁾

이황과 이이가 모두 “物理之極處가”라고 현토하지만 그 문장의 함의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견지한 것이다. 반대로 송시열은 이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物理之極處에”라고 현토할 것을 논하였는데, 이는 字意의 虛實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토나 ‘에’토 양쪽 모두 위주로 삼을 만한 것은 없지만, 대략 ‘에’토가 더 나은 듯하다. 이는 ‘之’자는 虛字이고 ‘處’자는 實字이기 때문이니, 虛字를 위주로 하여 ‘이’토를 붙이기보다는 實字를 위주로 하여 ‘에’토를 붙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³⁵⁾

34) 宋時烈, 『宋子大全』 卷91, 「答李汝九」, “退溪常以爲物格者, 人格之而至於其極也. 末年大悟其非, 以爲物格者, 只是物理到其極處也, 此正得其本文之意. 而又以爲理非死物, 故能自此至彼云, 則又失之遠矣, 豈所謂毫釐之差者耶? 蓋物理如冊子, 人之窮理, 如人看冊子, 人看此冊子, 自始至末, 則是雖在人看盡, 而自冊言之, 則曰冊盡, 豈曰此冊是活物, 故自始而行, 至於其終也?”

35) 宋時烈, 『宋子大全』 卷94, 「答李同甫」, “鄙意則兩無所主, 而略以厓讀爲勝者, 蓋以之字虛處字實, 與其主虛字而爲伊, 無寧主實字而爲厓也?”

‘이’토는 “物理之極處”의 ‘之’자에는 잘 맞지만 ‘處’자에는 어색하고, ‘에’토는 ‘處’자에는 잘 맞지만 ‘之’자에는 어색한데, 之는 虛字이고 處는 實字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에’토를 붙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다. 글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하면서도 현토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사례이다. 그러나 송시열의 이 說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고, “吾心之所知”와의 對句를 살리기 위해서나 경문의 ‘物格’과 조응하기 위해서는 ‘이’토를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³⁶⁾

“物理之極處”의 현토를 둘러싼 논의는, 다만 현토를 소재로 사용했을 뿐, 理와 心을 둘러싼 성리 담론 다름 아니다. 특히 이 담론은 그 논의를 촉발시킨 것이 현토에 대한 논란이었으며, 논의를 전개하는데 현토가 중요한 소재가 되었으니, 성리 담론에서 현토가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2. 『中庸章句』 2장의 “中庸之中 實兼中和之義”

『중용』 1장에서는 喜怒哀樂의 未發을 中이라 하고, 發하여 節度에 맞는 것을 和라 하여 中和를 말하였는데, 2장에서는 “君子는 中庸을 하고 小人은 中庸에 반대로 한다.”라 하여 中和의 和를 庸으로 바꾸어 中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주자는 “性情으로써 말하면 中和라 하고

36) 예컨대, 尹拯(『明齋遺稿』 卷16, 「與李君甫」.), 南九萬(『藥泉集』 卷32, 「答崔汝和」.), 權尙夏(『寒水齋集』 卷8, 「三答閔聖猷」.)가 모두 ‘이’토를 주장하였으며, 芝村 李喜朝(1655-1724)는 송시열에게 ‘에’토를 다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에’토를 붙이면 之자를 반드시 於자의 뜻으로 보아야 하니, 그렇게 한 뒤에야 글 뜻이 통할 수 있다. 만약 ‘이’토를 붙이면 處자는 순하지 않은 것 같지만 글 뜻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니, 之자를 반드시 바꾸어 ‘에’토를 붙이는 것은 處자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토를 붙이는 것만 못할 듯하다.[如作厓讀 則必以之字作於字意看, 然後文義可通. 如作伊讀, 則處字雖若不順, 而亦不至不成文義. 與其必變之字而作厓讀, 恐不若仍存處字, 而作伊讀之爲勝也.]”라고 하여 스승의 설을 따르지 않았다. (『芝村集』 卷8, 「答李君輔論大學」.)

德行으로써 말하면 中庸이라 한다.”는 游酢의 說을 『중용장구』에 채록하고, 이어서 “그러나 中庸之中 實兼中和之義”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中庸之中’ 아래에 어떤 토를 달아야 하는가이다.

문법으로만 보면 ‘中庸之中이’와 ‘中庸之中에’의 토가 모두 가능한데, ‘이’토를 달면 “中庸의 中자가”의 뜻이 되고, ‘에’토를 달면 “中庸 가운데”의 뜻이 되어, ‘之中’의 ‘中’자의 訓도 달라진다. 儉齋 金榘(1653-1719)는 이에 대하여 “‘之中’의 ‘中’은 속[裏]과 같다.”³⁷⁾라고 하여, ‘中庸之中에’의 해석을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厚齋 金榘(1646-1732)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 단락은 현토에 따라 글 뜻이 달라지니, ‘中庸之中이’로 보면 中자가 實字가 되고, ‘中庸之中에’로 보면 中자가 虛字가 된다. 근간에 士直(金榘)의 『中庸筭記』를 보았는데, ‘中에’로 해석하고 있었으니, 신기하여 좋아할 만한 듯하였다. 그러나 朱子가 “中庸의 中은 본래 과불급이 없는 中이나, 中자는 中과 和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中庸의 中은 ‘발하여 中節함’, ‘과불급이 없음’을 겸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周子(周敦頤)가 ‘中은 和이고, 中節이다.’라고 한 것이다.” 하였으며, 또 “中和의 中은 그 뜻이 精微하나, 中庸의 中은 실로 體와 用을 겸한다.”라고 하였다. 栗谷 선생도 “中은 中과 和의 뜻을 겸하니, 덕행으로 성정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中자는 “中庸之中이”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³⁸⁾

겉문리로만 보면 金榘의 현토가 안 될 것이 없지만, 주희가 中庸과 中和에 대하여 논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中庸之中이’로 현토하는 것이

37) 金榘, 『儉齋集』 卷27, 「中庸筭疑」, “之中之中, 猶裏也.”

38) 金榘, 『厚齋集』 卷9, 「答問·經義·中庸(第二章)·答崔士遜」, “此段隨其懸吐, 文義頓異, 以中庸之中 伊 看則中字實, 以中 厓 看則中字虛. 頃見士直讀中庸筭記, 則亦把作中 厓 看, 此似新奇可喜. 但朱子曰: 中庸之中, 本是無過不及之中, 中字兼中和言之. 又曰: 中庸之中, 是兼發而中節無過不及者得名. 故周子曰: 惟中者, 和也, 中節也. 又曰: 中和之中, 其義雖精, 而中庸之中, 實兼體用. 栗谷先生亦曰: 中兼中和之義, 以德行兼性情而言也云云, 然則此中字作中庸之中 伊 看者恐是.”

옳다는 말이다. ‘에’토를 달 경우에는 中庸의 中은 中和의 中에, 庸은 中和의 和에 각각 해당되므로, 中庸의 中이 다만 미발의 中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주자는 『중용장구』의 서두에 “中은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과불급이 없는 것의 이름이다.[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라고 하여, 中이 미발과 이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不偏不倚’는 미발의 中을 의미하고 ‘無過不及’은 時中의 뜻으로서 이발의 中을 의미한다.³⁹⁾

이 책의 이름을 지은 것은 본래 ‘時中’의 中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時中’할 수 있게 하는 所以는 이 미발의 中에 있는 것이니, 이 때문에 먼저 미발의 中을 말하고, 그런 뒤에 또 君子の 時中을 말한 것이다.⁴⁰⁾

中和의 中은 오로지 미발을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中庸의 中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니, 마음에 있는 中과 사물에 있는 中이 모두 있다. 이 때문에 文公 [朱子]이 중용 두 글자를 해석함에 반드시 내외를 합하여 말해서 ‘不偏不倚無過不及而平常之理’라고 한 것이니, ‘적확하여 극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中和에서 中은 미발의 中이고 和는 이발의 中인데, 中庸의 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때문에 “中庸之中 實兼中和之義”를 “中庸之中에”

39) 『中庸』과 관련하여, 미발과 이발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未發	已發
中	和(中節)
大本	達道
不偏不倚	無過不及(時中)

40) 『朱子語類』 卷62, 「中庸一」, “他所以名篇者, 本是取時中之中. 然所以能時中者, 蓋有那未發之中在, 所以先開說未發之中, 然後又說君子之時中.”

41) 陳淳, 『北溪字義』 卷下, “大抵中和之中, 是專主未發而言, 中庸之中, 却又是含二義, 有在心之中, 有在事物之中. 所以文公解中庸二字, 必合內外而言, 謂不偏不倚無過不及而平常之理, 可謂確而盡矣!” 이 내용은 『中庸章句大全』의 小註에 보인다.

로 현토하면 글의 원의에도 맞지 않고, 中庸에 대한 이해 역시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글 뜻과 현토의 확정 여부에 있어 성리설에 대한 조예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앞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현토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점검함으로써 문장에 대한 이해와 학문적 견해를 유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맺음말

토를 결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글의 전반적인 의미이다. 이 의미는 앞뒤 문맥이나 전반적 내용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문장의 주변에 놓여 있는 철학적 함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토를 어떻게 달았는가를 살펴보면 그가 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학문적 견해도 추적할 수 있다. 현토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字訓, 句解의 다름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현토가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고 보면 현토의 다름은 학문적 견해의 다름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현토의 해석적 기능을 보이고, 또 철학적 견해가 현토 안에 반영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토는 입말과 글이 달랐던 환경에서 그 이질감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 선인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해석적 기능을 갖추면서도 시간적 보편성을 갖는 원문 가공의 방법’을 남겨주었다. 이 현토가 선인들의 지적 유산이라는 점만으로도 그것을 연구하고 활용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현토는 단순히 그런 의의만 갖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현토는 글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까지 점검하게 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현토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지금 한문 고전을 연구함에 있어 현토를 활용하

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는 원전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현토는 치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의 학자들 사이의 사례를 살펴보는 데에 그쳤지만, 현토의 현대적 의의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번역과 연구에 있어 현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역을 줄여 주고 원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논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예컨대, 현토 없이 원문을 번역하는 경우와 현토한 후에 원문을 번역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본다든가, 원문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나 분석이 현토를 거칠 경우 수정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성리설과 관련된 글은 비교적 쉽게 읽히기 때문에 오히려 글의 짜임과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토를 함으로써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받는 사례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 『論語 附諺解』, 학민문화사, 1989.
 『大學中庸章句大全』, 학민문화사, 1989.
 『孟子 附諺解』, 학민문화사, 1989.
 『孟子注疏』, 북경대학출판사, 2000.
 權尙夏, 『寒水齋集』, 『韓國文集叢刊』 150-151, 민족문화추진회.
 金 榦, 『厚齋集』, 『韓國文集叢刊』 155-156, 민족문화추진회.
 金 棧, 『儉齋集』, 『韓國文集叢刊』 續50, 민족문화추진회.
 金長生·박완식 외 공역, 『沙溪全書』, 민족문화추진회, 2000.
 南九萬, 『藥泉集』, 『韓國文集叢刊』 131-132, 민족문화추진회.
 羅欽順, 『困知記』, 중화서국, 1985.
 朴文鎬, 『論語集註詳說』, 아세아문화사, 1987.

- 朴文鎬, 『孟子集註詳說』, 아세아문화사, 1987.
- 朴世采, 『南溪集』, 『韓國文集叢刊』 138-142, 민족문화추진회.
- 朴知誠, 『潛治集』, 『韓國文集叢刊』 80, 민족문화추진회.
-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08-116, 민족문화추진회.
- 柳雲龍, 『謙菴集』, 『韓國文集叢刊』 49, 민족문화추진회.
- 尹 拯, 『明齋遺稿』, 『韓國文集叢刊』 138-142, 민족문화추진회.
- 李 珥,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44-45, 민족문화추진회.
- 李 滉, 『經書釋義』, 열암기념사업회, 1983.
- , 『退溪全書』, 『韓國文集叢刊』 29-31, 민족문화추진회.
- 李喜朝, 『芝村集』, 『韓國文集叢刊』 170, 민족문화추진회.
-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286, 민족문화추진회.
- 朱 熹, 『朱子語類』, 중문출판사, 1970.
- , 『朱子全書』, 상해고적출판사, 2002.
- 陳 淳, 『北溪字義』, 중화서국, 1985.
-
- 박종천, 「標點과 懸出口訣의 비교 분석」, 『民族文化』 35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신영주, 「『한문토석』에 나타난 윤근수와 최립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漢文學報』 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20집, 대동한문학회, 2004.
- 이경룡, 「조선 중기 ‘격물치지’ 논변과 霞谷의 『大學』 二王融會의 實學」, 『陽明學』 20집, 한국양명학회, 2008.
- 이상하, 「한문의 토와 표점의 상관관계」, 『고전번역연구』 3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 전병욱, 「퇴계 철학에서 ‘理到’의 문제」, 『동양철학』 38집, 한국동양철학학회, 2012.
- 최 식, 「漢文讀法の 韓國的 特殊性」, 『漢字漢文教育』 2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Abstract

*The Controversial Cases of Hyunt'o(懸吐) in Interpreting Chinese Classic Texts and Commentaries of Collected Commentaries on the Four Books / Shin Sang Who**

Hyunt'o(懸吐) is a way for rendering text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nto understandable Korean. Joseon literati insered the additional postpositions and endings in Hangeul between phrases and did not modify the original text in classical Chinese. Since Hyunt'o aims to reach target language while keeping source language as it is, Hyunt'o can be defined as a sort of translation. When we take note its interpretative function, we can notice that the types of T'o(吐)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how a person who made Hyunt'o interpreted original texts. Hence, we are able to explain how he interpreted original sentences by looking over how he made Hyunt'o.

This study aims to examine controversial cases of Hyunt'o among controversies surrounding interpretations of Chinese classic texts and commentaries. By those cases, classified into interpretation of original texts and commentaries, we can find out not only the correlation between Hyunt'o and the interpretation of sentences, but how controversies of Hyunt'o contributed to make elaborate and strict interpretation. Especially by looking over the controversial cases of commentaries, we can understand how Hyunt'o was widely used within the discourse on Neo-confucianism and deciding the type of T'o(吐) was depended on a person's philosophical view.

【Key words】 Hyunt'o(懸吐), Collected Commentaries on the Four Books, Vulgate Elucidations(諺解), Li-tao-shuo(理到說), Doctrine of the Mean(中庸)

투고일 : 4월 23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Sungshin Women's Univ. / phil_33@hanmail.net